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

Nursing Experience of Pediatric Ward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김다정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

Nursing Experience of Pediatric Ward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지도교수 정재심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김다정

김다정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연 희



심사위원 김 주 현



심사위원 정 재 심



울 산 대 학 교 산 업 대 학 원

2024년 2월

감사의 글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원 면접을 봤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전문간호사 시험을 끝내고 논문을 마무리하는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대학원 생활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니 시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는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인생 중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간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였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에 나아갈 수 있게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원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 정재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부족한 저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가르침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주현 교수님, 긴 시간 동안 늦은 밤까지 제 논문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질적 연구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갑작스럽게 줌 회의에 초대되어 제 논문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신 허연정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김연희 교수님, 교수님의 꼼꼼한 조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진학부터 시험, 논문까지 상황에 따른 원포인트 레슨으로 응원해 주신 고영미 UM님,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린이병원 유선영 UM님, 이승미 UM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원, 대학원, 논문까지 영원한 프리젠퍼 김윤형 선생님, 전공 선택으로 고민할 때 생각의 틀을 깰 수 있게 해주신 감염관리 선배님 임새롬 선생님,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던 날 마음에 닿는 한마디로 위로해 주신 허정미 선생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대학원이세요?”, “아직도 논문 하세요?”라며 헤쳐나가고 있는 길에 안부를 물어준 136 병동 동료들에게도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응원하며 의지했던 동기 권아영, 류지영, 윤미나, 김소미, 이혜빈 선생님을 비롯한 감염관리전공 21학번 동기 선생님들

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하는 일에 무한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인사 드립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동생 래옥이와 올케, 막내지만 친구 같은 든든한 동생 명선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던 응원해 줄 나의 친구들 기선효, 김은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면으로 미처 언급하지 못했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학위 과정으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인연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논문은 2022년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한마음장학금으로 연구비 일부를 지원받아 연구하였습니다.

2024년 2월

김다정 올림

국문초록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

연구 목적: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소아병동에서 COVID-19 확진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20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연구를 통해 87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을 통해 4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고, 이들을 15개의 주제로 구성한 뒤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총 6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6개의 범주는 ‘일반 소아병동에서도 COVID-19 격리가 일상화됨’, ‘소아병동 COVID-19 격리로 인한 고단함’, ‘환아보다 보호자의 간호사가 됨’, ‘소아병동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혼란이 옴’, ‘개선되는 상황들’,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여 간호역량이 높아짐’이다.

연구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은 성인 COVID-19 환자 간호 경험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지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COVID-19, 간호사, 소아병동 간호사, 간호 경험, 질적연구

목차

국문초록	i
목차	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2
II. 문헌 고찰	3
1. COVID-19 환자간호	3
2.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	5
III. 연구 방법	7
1. 연구 설계	7
2. 연구자의 경험적 배경과 연구 준비	7
3. 연구 대상자	7
4. 자료 수집	8
5. 자료 분석	9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10
7. 연구의 엄밀성 확보	11
IV. 연구 결과	13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3
2.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	15
3. 현상학적 글쓰기	49
V. 논의	52
VI.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58
부록	62
ABSTRACT	71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14
Table 2. Categorization of ‘Nursing Experience of Nurses in Pediatric War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1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하여, 2020년 1월에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020년 3월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COVID-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발생 초기부터 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ment)의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기반한 철저한 방역 문화를 정립하였다(Park et al., 2020). COVID-19 유행 초기, 정부는 확진자 중증도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 기관 등에 치료 병상을 배정하여 입원 치료를 수행했고, 지금까지도 임상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COVID-19 환자들을 돌보며 감염 예방, 감염 통제 및 격리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Yoon et al., 2020).

그러나 감염의 전 세계적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로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COVID-19 환자 입원 병상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COVID-19 확진 환자를 입원치료 하기 위해 특수병상을 운영했지만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2021년 3월부터 일반병동 음압 병실에서 COVID-19 확진 환자를 간호했고, 음압 병실도 부족해지자 일반 1인실 병실에서도 확진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COVID-19 확진 환자를 일반병동에서 간호하는 것은 소아병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아 환자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아동의 질병뿐 아니라 각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성을 고려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아병동에는 보호자가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간호 대상자가 소아 환자뿐 아니라 아동의 가족까지 확대 되는 상황적 특성이 있다(Cho & Bang, 2013). 소아 환자의 경우 직접 간호는 물론 보호자 상담과 교육, 시설과 환경 등에 대한 간호 요구도가 큰 편이다(Cho & Bang, 2013).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들은 일반 성인보다 소아 환자 간호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Choi & Bang, 2013), 실제로 소아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높다는 선행연구가 있다(Kim, 2011).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COVID-19 바이러스 감염(Han et al., 2020)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과 에어로졸 관리가 필요하다. 소아 환자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간호 처치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울음 등으로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될 확률이 성인병동에 비하여 높다.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현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COVID-19 확진 환자의 격리 기간은 성인에 비해 길었으며, 상주보호자가 필수인 소아병동의 상황에서 COVID-19 감염은 보호자에게 전파되었다. 이에 소아병동 간호사들은 일반병동에서 근무조당 10~13명의 환자를 간호하면서 COVID-19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확진 보호자까지 돌보게 되었다. 상주보호자의 교대, 출입을 제한하는 병원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성인병동에 비해 다양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소아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높다는 선행연구는 있지만(Kim, 2011), 감염병 유행상황에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과 국내 의료환경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소아병동 간호사가 COVID-19 유행상황에서 겪는 간호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탐색하고, COVID-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지지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는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II. 문헌 고찰

1. COVID-19 환자 간호

COVID-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Galehdar 등(2020)은 의료진 중 특히 간호사가 COVID-19 환자를 돌보는 동안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 질병의 특성상 불안, 시신에 대한 불안, 가족 감염에 대한 두려움, 시간 낭비에 대한 괴로움, 나쁜 소식을 전할 때의 감정적 고통, 오염에 대한 두려움, 강박적인 생각의 출현,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나쁜 감정, 두려움과 양심의 갈등, 예방책에 대한 대중의 무지 등 11개 항목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COVID-19 유행상황 동안 간호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Galehdar et al., 2020).

Arcadi 등(2021)은 COVID-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했고, 그 결과 불확실성과 두려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보살피다’의 의미 변화, 역할과 관계의 변화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는 간호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간호, 간호의 가치를 분명하게 실감하면서 간호의 질 향상, 전문인력의 증가, 간호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Arcadi et al., 2021).

국내 선행연구에서 근무 부서별 간호사의 경험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Ha 등(2022)은 종합병원 선별 진료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두려움과 열악한 환경, 업무지침의 혼선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종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병원관리 차원의 추가적인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서의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Ha et al., 2022).

Lee (2021)의 연구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은 COVID-19 팬데믹으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응급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말하였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해당 경험을 직업적 성취와 경험적 자산으로 승화시켰고, 덕분에 개선된 응급실 감염관리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Lee et al., 2021). 또한 간호사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요인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며, 현장 간호사들과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Lee et al., 2021).

COVID-19 환자를 간호한 간호 경험을 기술한 Chung 등(2022)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COVID-19 환자를 대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경험하면서도 상황에 적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간호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중요한 의료인력인 간호사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반응을 살피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한 환경에서의 적절한 인력 배치와 적시의 물품공급 등 안정적인 간호시스템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관리자의 지지와 관심, 동료 간 협력과 배려, 환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Chung et al., 2022).

Kim 등(2022)은 초기 COVID-19 유행 시기 감염 병동 간호사의 돌봄 경험에 대해 ‘감염 병동 마련에 고군분투’,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힘에 부치는 환자 간호’, ‘환자 보호를 위한 노력’, ‘간호사로 정체성이 성숙됨’, ‘함께 만들어 가는 방역 공동체’라는 6가지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들 역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힘에 부치는 환자 간호 수행 중에도 전문직 정체성이 성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병원 환경 측면으로는 감염 병동 신설이 필요하고, 간호사의 두려움, 업무 가중, 스트레스 및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Kim et al., 2022).

Oh 와 Lee (2021)는 COVID-19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경험을 ‘반복되는 위기감’, ‘급격한 변화를 버텨’, ‘개인 생활을 희생함’, ‘간호에 대한 뿌듯함’으로 도출하고 COVID-19 환자 간호를 수행한 다양한 영역의 간호사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2.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

Kim 과 Park(2017)의 연구에 따르면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직무스트레스는 소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병동과는 달리 소아는 소아의 질병뿐만 아니라 성장발달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인적 간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돌봄의 주 대상이 아픈 소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를 함께 간호해야 하는 소아병동 간호사의 특수성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Lee (2016)의 연구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소아병동 간호사 3.84점, 일반병동 간호사 3.10점이었다. 소진의 전체평균은 6점 만점에 소아병동 간호사 3.28점, 일반병동 간호사 2.34점으로 감정노동과 소진의 평균 점수는 소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Lee, 2016). 직무 만족도는 소아병동 간호사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69점, 일반병동 간호사는 3.56점으로 소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였으며, 다른 집단의 간호사들 보다 소아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Lee, 2016). 따라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직무만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Lee, 2016).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에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성인환자를 간호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였다. Diana 등(2021)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까지 대유행의 정점에서 소아 COVID-19 감염률은 2% 미만인 시점에서 소아병동이 COVID-19 성인 환자를 위한 병동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성인 환자를 간호한 소아병동 간호사 81명의 경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참가자의 90%가 성인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한 경험이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환자를 돌봄에 있어 긴장과 불안을 느꼈다(Diana et al., 2021). 또한 60% 이상이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병에 대한 안전문제 등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주는 추가적인 책임과 업무량 증가, 간호사 수요 증가 등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꼈다(Diana et al., 2021). 따라서 소아과 간호사가 새로운 질병과 새로운 환자 집단을 돌보는데 적응함에 따라 안전과 대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간호사들은 팀워크와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Diana et al., 2021).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가 겪은 간호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통한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자의 경험적 배경과 연구 준비

본 연구자는 13년간 소아병동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아병동은 성인병동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직접 경험하였다. COVID-19 라는 신종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경험을 기억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간호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며 감염병 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본 연구를 준비하며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질적연구 방법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고, 20여 편의 질적연구 논문들을 고찰하여 현상학적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또한 대한질적연구학회에 가입하여 질적연구 학술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질적연구에 대한 시야를 넓히며 질적연구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질적연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면담을 통해 조언을 받았다.

3.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의 일 상급종합병원 소아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COVID-19 팬데믹에서 소아병동 간호사가 겪은 간호 경험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2022년 3월 기준으로 소아병동에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소아 COVID-19 확진 환자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자, 연구의 목적

과 면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아 항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2021년 3월부터 소아 일반병동에서 COVID-19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를 함께 간호하게 되었고, 간호사가 업무 수행에 숙달되는 기간이 적어도 1년이 걸린다는 선행연구(Kramer et al., 2013)를 고려하여 대상자는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인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는 총 20명이었고, 이는 더 이상의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고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집된 숫자를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서울 소재의 한 상급종합병원 소아병동에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 기준에 부합한 자를 선정하였다. 1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7명과 개별 심층 면담 13명을 통해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두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면담을 시행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였으며, 면담은 주변의 방해받지 않는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 동의서를 참여자에게 제공하면서 동의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자가 동의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를 시행하여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종교, 총 임상경력, 소아병동 경력, 직위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적인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하거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나이와 소아병동 근무 경력을 비롯한 일반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아병동에서 COVID-19 확진 환자를 간호하며 경험한 내용을 반 구조화된 질문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총 면담 횟수는 21회였고, 면담 시간은 20~60분 정도로 1회 면담의 평균 시간은 43.7분 이었다. 면담 질문은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소아병동에서 근무한 경험이 얼마나

되나요?”와 같은 도입질문에서 “소아병동에서 COVID-19 확진 환자를 간호한 경험은 어떠하였나요?”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경청하며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나갔다. 세부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 구조화된 질문>

- 주 질문

“소아병동에서 COVID-19 확진 환자를 간호한 경험은 어떠하였나요?”

- 보조 질문

“소아 COVID-19 환자 간호를 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소아 COVID-19 환자 간호를 하면서 보람 있었던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아 COVID-19 환자 간호를 하면서 부정적인 경험이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원의 지원이 있었나요? 있다면 어떻게 느끼셨나요?”

“소아 COVID-19 환자 간호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마무리 질문

“이야기하고자 한 것 중 하지 못한 것이나, 더 보충할 것들이 있습니까?”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핸드폰으로 녹취한 뒤 문자로 변환하였으며, 면담 후에 녹취된 내용을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필사하였다. 자료 중 의미를 명확히 찾기 위하여 1명의 참여자에게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가 진술한 맥락 속에 담겨있는 사실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여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Colaizzi (1978)가 제시한 다

음의 현상학적 방법 6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자료 검토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 파악을 위해 녹음한 내용을 들으며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 그대로 필사한 후 대상자의 기술을 반복해서 읽었다.

2) 중요한 진술 추출

필사 내용과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의미 있는 진술(단어, 구, 문장)을 도출하기 위해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3) 의미 형성 단계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여 질적연구 전문가와 논의 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연구자의 언어로 재진술하여 추출된 진술문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4) 형성된 의미들을 주제 묶음으로 정리

연구자의 언어로 재진술된 의미를 하위주제로 분류하여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포괄적인 주제로 분석하였다.

5) 연구 주제의 근본 구조 확인

주제를 통해 COVID-19 팬데믹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모음으로 범주화하여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6)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질적연구 전문가에게 현상의 최종적인 기술을 확인 받고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를 1명의 참여자와 면담을 시행하여 연구자의 분석이 참여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 소속 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번호: 2023-0037)을 거친 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 목적, 방법, 인터뷰 내용의 녹음에 대해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수집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목적

으로 사용될 때에도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뷰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이전에 제공한 모든 정보를 영구적으로 파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동의서는 원본에 대상자, 연구자 모두 서명 후 사본을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연구자와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1차로 필사한 자료의 개인 정보는 가명이나 기호로 대체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자료, 증례기록서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연구자 개인컴퓨터에 보관하였으며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서만 다루어졌다.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이 끝나면 모든 정보는 폐기할 예정이다.

7. 연구의 엄밀성 확보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을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성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생생하고 충실하게 기술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마다 평균 20분 이상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개방형으로 면담 질문을 시작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경험과 견해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laizzi (1978)가 제시하는 분석방법과 전략의 총 6단계를 걸쳐 자료 수집을 진행하여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참여자 1명과 면담을 통해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이 참여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주제 모음이 원자료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문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적합성이란 연구 결과가 다른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비슷한 조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종교, 총 임상경력, 소아병동 경력,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설명하여 적합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감사가능성은 연구자 외에 다른 사람도 연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접근, 선정방법,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 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연구자의 해석과 분석을 독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가능성은 연구자가 중립성을 유지하여 연구 과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소아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므로 연구자의 근무 경험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의 확보를 통해 본 연구의 확인가능성을 확립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격리 병동이 아닌 일반 소아병동에서 COVID-19 확진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20명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05세였고, 미혼이 70%(14명), 무교가 70%(14명),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학력은 학사가 95%(19명), 일반간호사가 90%(18명), 이중 성인 병동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 임상 경력과 소아병동에서의 경력이 동일했고, 평균 임상 경력은 6년 2개월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	Gen der	Age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 level	Job position	Clinical career in pediatric wards
1	F	28	Single	None	Bachelor	Staff nurse	4y 6m
2	F	25	Single	Christianity	Bachelor	Staff nurse	2y 9m
3	F	27	Single	Christianity	Bachelor	Staff nurse	4y
4	F	32	Single	None	Bachelor	Charge nurse	9y 9m
5	F	27	Single	Christianity	Bachelor	Staff nurse	4y 10m
6	F	29	Married	None	Bachelor	Staff nurse	6y 5m
7	F	25	Single	None	Bachelor	Staff nurse	2y 10m
8	F	27	Single	Christianity	Bachelor	Staff nurse	2y 6m
9	F	25	Single	None	Bachelor	Staff nurse	3y
10	F	25	Single	None	Bachelor	Staff nurse	3y
11	F	27	Married	None	Bachelor	Staff nurse	4y 7m
12	F	41	Married	None	Bachelor	Staff nurse	14y 10m
13	F	26	Single	None	Bachelor	Staff nurse	3y 6m
14	F	43	Married	None	Bachelor	Staff nurse	21y
15	F	28	Single	None	Bachelor	Staff nurse	4y 10m
16	F	27	Married	None	Bachelor	Staff nurse	4y 10m
17	F	28	Single	None	Bachelor	Staff nurse	4y 7m
18	F	31	Married	Christianity	Master	Staff nurse	6y 2m
19	F	30	Single	None	Bachelor	Staff nurse	7y 1m
20	F	30	Single	Catholic	Bachelor	Staff nurse	6y 4m

F=female; y=years; m=months

2.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Colazz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20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어진 면담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면담 자료에서 87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이 의미 있는 진술문을 통해 42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들을 15개의 주제로 구성한 뒤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총 6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Nursing Experience of Nurses in Pediatris War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ubtheme	Theme	Category
갑자기 예정된 확진 환아로 긴장하게 됨 확진 환아 간호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확진 환아를 간호하게 된 부담감	일반 소아병동에서도 COVID-19 격리가 일 상화됨
일반 병실 격리에 대한 불안감 공동 물품 오염 제거에 대한 의구심	갖춰지지 않은 격리 시설	
전파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됨 일반 환아보다 확진 환아를 우선하게 됨	확진 환아와 일반 환아 를 동시에 담당함	
일반 환아 보호자가 담당간호사를 기피함 바이러스 전파자로 취급당해 상처받음	확진 환아 담당간호사 에 대한 다른 보호자의 불편한 시선	
말이 안 통하는 환아 간호에 간섭하는 확진 환아 보호자 보호구 착용으로 힘들어진 병실 출입 성인보다 연장되는 격리 기간 보호자 확진으로 환아의 격리 기간이 길어짐	성인 격리와 너무 다른 소아 격리	소아병동 COVID-19 격리로 인한 고단함
제 기능을 못 하는 간호사 개인보호구 마스크 착용을 못 하는 확진 환아 환아의 분비물에 더 많이 노출됨	COVID-19에 더 많이 노출되는 간호사	
소아병동과 동떨어진 감염관리 지침 상주 보호자 제한의 어려움을 간호사에게 투사함 환아 옆에 있으려고 COVID-19 증상을 숨기는 보호자	감염관리 지침을 지키 기 위한 간호사의 고군 분투	

<p>확진 보호자가 환아 돌봄을 지속하려고 버텨 확진 보호자의 증상에 대해 부담을 느낌</p>	<p>확진 환아와 함께 줄줄이 확진되는 보호자 환아보다 보호자의 간호사가 됨</p>
<p>상주 보호자 코로나검사 시행과 결과 확인 업무가 추가됨</p> <p>산후 우울증,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보호자로 인한 당혹스러움</p> <p>COVID-19 노출로 격리중인 보호자의 왕진 진료 연계함</p>	<p>상주 보호자를 위한 간 호 업무가 더 늘어남</p>
<p>보호자의 확진으로 간호사는 환아의 보호자가 됨</p> <p>소진된 보호자를 대신하여 업무 중 환아를 돌보게 됨</p> <p>간호사에게 환아를 맡기고 보호자가 개인 업무를 수행함</p> <p>독박 육아에 힘들어진 보호자가 환아를 두고 집으로 가버림</p>	<p>베이비시터가 된 간호 사</p> <p>소아병동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혼란이 옴</p>
<p>이삿짐처럼 많은 환아의 짐을 같이 옮겨줌 환아의 물품 구입을 위해 근무 중 마트에 다녀오거나 택배 운반 업무를 시행하게 됨 보호자 대신 환아의 음식을 준비함 환아 때문에 격리가 된 보호자의 요구 처리</p>	<p>간호업무 대신 보호자 의 사적업무를 맡아줌</p>
<p>병원에서 택배 전달, 마트 대행 서비스를 시행해 줌 추가 인력의 도움을 받음</p> <p>병동에서 확진 환아 담당간호사의 환자수를 조정해줌</p>	<p>병원과 병동 차원의 지 원을 받음</p> <p>개선되는 상황들</p>
<p>격리중인 보호자의 우울감에 공감함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보호자를 지지해 줌 격리 간호의 힘들음을 알아주는 보호자들에게 위로를 받음</p>	<p>보호자와 간호사가 서 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p>
<p>새로운 업무를 해냄 확진 환아 격리에 성공하여 추가 전파를 예방함</p>	<p>팬데믹 상황에서 위기 를 극복함</p> <p>팬데믹 상황을 극복하 여 간호 역량이 높아짐</p>
<p>기저질환으로 전원이 어려운 확진 환아를 간호했다는 뿌듯함 또 다른 팬데믹 상황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됨</p>	<p>COVID-19 확진 환아 간호에 자부심을 느낌</p>

범주 1: 일반 소아병동에서도 COVID-19 격리가 일상화됨

본 범주는 ‘갑자기 확진 환아를 간호하게 된 부담감’, ‘갖춰지지 않은 격리 시설’, ‘확진 환아와 일반 환아를 동시에 담당함’, ‘확진 환아 담당간호사에 대한 보호자의 불편한 시선’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제 1: 갑자기 확진 환아를 간호하게 된 부담감

참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아 확진 환아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COVID-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격리병동으로 환아를 전동 보내지 못하고 일반 소아병동에서 확진 환아를 간호하게 된 상황에 부담을 느꼈다.

하위 주제 1: 갑자기 배정된 확진 환아로 긴장하게 됨

초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확진자를 음압 시설이 마련된 격리병동에서 PAPR(전동식 공기 정화 호흡기)을 착용하고 간호하였다. 하지만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어느 날 갑자기 일반병동에 확진 환아가 배정되었고, 참여자들은 출근 후에 COVID-19 환아의 담당간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래 처음에는 (병동에서는) 이렇게 노출자 와서 격리하고 그리고 확진 환자는 사실 우리가 격리 병동으로 환자를 보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환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환자를 병동에서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참여자 6>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됐는데 확진환자 보실래요? 이렇게 의견을 물어 봤다면 전 안 본다 했을 것 같아요. 안 본다고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병동에 배정됐고 네가 담당 간호사니까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참여자 14>

“갑자기 확진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예상할 수 없었으니... 갑자기 출근했는데 확진자를 보게 되었다? 이러면 좀 더 긴장이 되긴 했었어요.”
<참여자 8>

하위주제 2: 확진 환자 간호에 대한 두려움

COVID-19는 신종 감염병으로 특별한 치료약이 없었고, 성인 환자 간호에서도 명확한 예후를 알지 못하여 두려움 속에서 부딪혀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아 COVID-19 감염에 대해서는 더욱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참여자들은 예상할 수 없는 환자 상태와 불안감이 커진 보호자 응대도 어려웠음을 진술하였다.

“그런 환자 컨디션을 우리가 처음 봤잖아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컨디션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개가 일반적인 *sedative drug*을 썼다고 그렇게 막 안 좋아지려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냥 평소대로 *sedation drug*을 주고 *spinal tapping*을 했는데 이제 안 좋아져서...”
<참여자 12>

“정말 초반 때는 그 불안감이 다들 너무 심해서... 근데 뭐 차라리 환자가 성인이었으면 좀 이런 예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그냥 일반 감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참여자 20>

주제 2: 갖춰지지 않은 격리 시설

일반병동에서 COVID-19 확진 환자를 간호하게 된 참여자들은 전실(anteroom)과 같은 음압 격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일반 1인실 병실에서의 환자 간호에 대해 불안한 마음과,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 사이의 공동 물품 사용에 관해서도 의구심을 가진 채로 환자를 간호하였다.

하위주제 1: 일반 병실 격리에 대한 불안감

COVID-19 확진 환아는 일반병동 내에서도 음압방 배정이 원칙이지만, 확진 환아의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압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 1인실 병실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COVID-19 확진자를 위한 격리 병동과 같은 시설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아 상태에 대한 불안과 일반 병실에서 격리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 차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확진 환아를 간호하였다.

“코로나 확진자들 볼 수 있는 병실은 이렇게 틈이 보이고 모니터 같은 것도 곁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병동에서 본 첫 확진자는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니깐 그 안에서 애가 어떻게 있는지, 잘 먹고 잘 싸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밖에서 볼 수 있는 행위조차도 할 수 없고 궁급하면 우리가 또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깐. 그게 조금 병동에서 볼 때는 이렇게 모니터랑 이런 게 연동되어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 그런 불안함도 컸었던 것 같아요. 애가 진짜 괜찮은 게 맞는지” <참여자 1>

“그리고 환경이 음압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미화원님이나 왔다 갔다 하는 환자, 보호자들이 충분히 노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병동에서 그런 바이러스 환자를 보는 게...” <참여자 12>

“아무리 뭘 천막을 놓고 뭘 하든 그냥 무조건 다 지나가시거든요. 그걸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가끔 그냥 문이 다 닫혀 있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제가 문을 열었을 때는 음압이 딱 풀리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거기 계신다던가 하면은 그럴 때 조금 찻찻하기는 하죠.” <참여자 17>

하위주제 2: 공동 물품 오염 제거에 대한 의구심

일반병동에서 비감염 환아와 함께 확진환아를 간호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물품은 담당 간호사가 소독하면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량도 증가했고, 감염 전파의 위험에 대해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혈압계도 확진자마다 그 방에 넣어 놓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확진자 방에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또 보호주의하는 애한테 또 들어 갔다가 나오고 약간 이런 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보호주의 하는 애가 열이 난다. 갑자기 기침 증상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면 괜히 코로나 옮긴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들고... 물론 그랬던 적은 없기는 한데 코로나인가? 하면서 불안했어요. 더 BP기 잘 닦고 막 이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참여자 20>

“물품을 아무리 저희가 이제 따로 쓴다고 하지만 같이 써야 되는 물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클리넬로 소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저희가 하나씩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여자 7>

주제 3: 확진 환아와 일반 환아를 동시에 담당함

참여자들은 일반병동에서 확진 환아와 일반 환아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내가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것 같은 우려를 안고 근무하였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환아 질병의 중증도와는 상관없이 확진 환아라는 이유로 간호에 있어 확진 환아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였다.

하위주제 1: 전파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됨

일반병동에서는 한 명의 간호사가 확진 환아와 함께 비감염 환아를 함께 담당했고, 격리병동과 다르게 4종 보호장구만 착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나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항상 불안했고, 교차 전파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저희 병동에 면역력 약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조심스럽고, 환자를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환자를 보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를 봤다가 다른 환자를 보게 보는 과정에서 약간 제가 전파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보호장구도 그게 과연 나를 비닐 가운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방을 나올 때 분명 손을 씻고 나오긴 하지만 어딘가에 붙은 바이러스를 내가 다른 병실에 전파하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 <참여자 14>

하위주제 2: 일반 환아보다 확진 환아를 우선하게 됨

확진 환아는 일반 환아에 비해 보호복 착·탈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 또한 환자 상태뿐만 아니라 환아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에도 간호사는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참여자들은 이로 인해 일반 환아에게 제공되는 간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확진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한테 들어가는 빈도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면은 다른 일반 환자들을 사실 볼 시간이 없어요... 혈압 재고 그다음에 약 드리고 I/O 끊으면 3번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한 5번을 더 가니까 한 8번이면은 다른 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확진 환아) 보는 건 보는 거지만 이 친구 때문에 다른 봐줘야 될 친구들이 할 당할 수 있는 시간 같은게 줄어들는데...” <참여자 18>

“확진자는 정작 증상이 많지 않더라도 때마다 콜벨을 올리시면... (중략) ...중환자가 있을 때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조금 중하면 그 환자를 조금 더 보게 되는 게 당연한데 확진자가 같이 있으면 확진자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 그 방(확진자방)은 또 다른 분들이 가주시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담당 간호사의 몸은 하나고 그런 것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참여자 8>

주제 4: 확진 환자 담당간호사에 대한 다른 보호자의 불편한 시선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들은 내 아이의 담당간호사가 COVID-19 확진 환자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고, 참여자들은 보호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하위주제 1: 일반 환자 보호자가 담당간호사를 기피함

보호자들은 내 아이의 담당간호사가 COVID-19 확진 환자도 간호한다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이나 행동이 참여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확진자를 간호하는 것보다 확진자를 간호하면 근무복이 다르니까 그거를 입고 다른 환자한테 갔을 때 그 환자 보호자들이 선생님은 왜 옷이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확진자를 본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나 자기한테 전파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복 외에도 격리 가운을 입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들어가고, 손위생도 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찻찻해하는? 눈빛을 좀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하위주제 2: 바이러스 전파자로 취급당해 상처받음

보호자는 확진 환자 담당간호사를 기피하는 것뿐 아니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여 담당간호사에게 심리적 부담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아기들이 사원증이나 시계, 혈압계 이런 거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들이 지지야 지지! 하시면 이런 약간 제가 약간 좀 더러운 존재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더 손 씻기도 하려고 하고 집에서 더 씻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환자가 이제 아기니까 막 와서 저한테 친하게 하고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선생님은 만지지 마!’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저를 무슨 병원체인 것처럼 취급을 하시니까... 열심히 손위생이나 격리에 대한 걸 잘 지키고 있는데 저를 더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상처를 받긴 하더라고요.” <참여자 8>

범주 2: 소아병동 COVID-19 격리로 인한 고단함

본 범주는 ‘성인 격리와 너무 다른 소아 격리’, ‘COVID-19에 더 많이 노출되는 간호사’, ‘감염관리 지침을 지키기 위한 간호사의 고투’의 3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제 1: 성인 격리와 너무 다른 소아 격리

COVID-19 확진 환자를 일반병동에서 격리하는 상황은 성인병동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소아 환자의 특수성과 감염병 격리라는 상황이 더해진 소아 확진 환자 격리는 간호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환아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고 감염병 상황에 더욱 예민해진 보호자의 눈치도 만만치 않았다. 병실 출입을 위해 담당간호사는 더 자주 보호구를 교환해야 했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소아의 특성상 기본 격리 기간이 성인보다 길었다. 또한 환아의 확진은 거의 보호자 확진으로 이어지면서 병동에서는 확진 보호자로 인한 감염병 격리를 지속해야 하였다.

하위주제 1: 말이 안 통하는 환아

소아병동에서 환아는 간호사가 차분하게 처치를 시행할 수 있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한 치료를 위한 각종 기구들도 몸에 붙어있게 가만두지 않는다. 소아병동이기에 때문에 당연한 업무들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모두 보호구를 착용한 채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느꼈다.

“아기들은 진짜 몇 명씩 잡고 (코로나 검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

실 위험하잖아요. 이제 코 쪽을 찌르는데 애가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하면 위험하니까.. 또 이제 (환아가) 너무 irritable 하면 진짜 몇 명이서 잡아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여자 7>

“Nasal prong 같은 거 해놓으면 다 잡아 뜯고 이래 가지고 또 붙여주고 또 붙여주고, HFNC 맨날 다 뜯어서 맨날 제대로 코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석션도 해줘야 되고, 청진하려고 해도 (애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뻑뻑 울어 재껴 가지고 또 그럼 진정됐을 때 또다시 들어가서 청진해 봐야 되고” <참여자 20>

하위주제 2: 간호에 간섭하는 확진 환아 보호자

참여자들은 근무조 내에 10~13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업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려 하지만 그 계획은 환아나 보호자의 컨디션에 따라 변경된다. 환아의 수면이나 수유 패턴에 따라 보호자는 간호행위를 거부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간호를 제공하면서도 보호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

“(확진된) 아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이러니까 밤새 딱 며칠 동안 이제 보호자가 못 주무시고 그랬었나 봐요. (보호자가) 계속 못 잔 상태니까 밤에 제가 그냥 혈압이나 열만 측정하러 병실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 예민해져서 ‘뭐 하세요!’ 이라고.. 아침에 피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환아가 우니까) 아기가 이렇게 우는데 이거 꼭 검사해야 되는 거냐며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참여자 7>

하위주제 3: 보호구 착용으로 힘들어진 병실 출입

성인환자라면 한 번에 해결될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소아병동에 서는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격리 병실에 더 자주 출입하게 되고, 격리 병실내의 사소한 일이라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호구 착·탈의를 반복하는 일이 많

아서 참여자들은 더 힘들었다.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occlusion(주사줄 막힘)이나 air알람(기계알람) 이런 것도 많이 올리고, 움직이다가 (수액) 줄 라인을 중간에 끊어 먹는 다든지 그런 경우도 자주 있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로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챌다 와서 봐달라 그런 것들.. 궁금한 거 있어도 보호자가 나오지 못하니까 궁금한 거 있을 때는 (콜벨로) 부르면 보호구 다 착용하고 들어가서 질문 대답해 드려야 되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참여자 15>

하위주제 4: 성인보다 연장되는 격리 기간

COVID-19 환자들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인환자 격리기간인 일주일(7일)을 더해 총 10일 동안 격리를 시행하였다. 또한 에어로졸 처치가 있거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소아 격리기간 10일보다 더 길어지기도 하였고, 격리를 해지하는 시기는 환자 상태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소아는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를 100% 착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격리 기간을 갖는다고 하면 소아 같은 경우는 감염과와 일단 상의를 하고 10일 정도, 그러니까 3일 정도 더 격리를 하고 해제 하는 게 있어서..” <참여자 13>

“면역 저하자 또는 에어로졸 처치 하는 환자는 10일 이상 이거나 이런 식으로” <참여자 20>

“면역 저하자는 거의 20일 정도 까지도 했던 것 같거든요. PID(소아 감염과) 의뢰를 해서 해지될 때는 컨펌받고 해지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 <참여자 19>

하위주제 5: 보호자 확진으로 환자의 격리 기간이 길어짐

소아의 경우 상주보호자가 무조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아가 COVID-19에 확진되어도 보호자는 퇴실이 어렵고, 1인실 병실에서 함께 밀폐된 생활을 하게 된다. 확진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상시 마스크 착용등을 교육하지만 보호자는 환자의 비말에 노출되고 결국 환자의 확진은 보호자의 동반 확진으로 이어져 환자의 격리가 해지된다 하더라도 병동에서는 보호자 확진으로 인해 환자의 격리가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들은 길어지는 팬데믹에 힘든 참여자들을 더욱 지치게 하였다.

“환자만 확진된 경우, 7-10일을 1인실 격리해야 하는데 환자가 해지될 즈음 보호자가 확진되고 애는 나 밖에 못 본다면서 퇴실할 수 없다고 해서 보호자 격리 때문에 4종 보호구를 입고 일주일간 더 격리했던 적이 있었 습니다. 환자 간호 때문이라면 힘들어도 감내하지만, 다른 보호자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이 길어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4>

“그런 상황에서는 교대를 할 사람이 없어 꼭 엄마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엄마가 뒤늦게 확진이 나와서 격리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 고” <참여자 13>

“보호자는 계속 같이 격리를 했었어요. 퇴실하지 않고, 근데 원래 확진 보호자는 퇴실이 원칙이긴 한데 근데 그 케이스는 교대할 수 있는 보호 자가 없어서 한동안 그냥 계셨어요.” <참여자 20>

주제 2: COVID-19에 더 많이 노출되는 간호사

일반병동에서 간호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인 보호복은 환아로 인해 훼손 되기도 했고, 환아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울음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가래를 뱉어낼 수 없어 수시로 간호사가 suction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 환자의 에어로졸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하위주제 1: 제 기능을 못 하는 간호사 개인보호구

감염병 상황에서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시간도 업무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이런 개인보호구가 환아들의 통제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훼손되어 참여자들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였다.

“애들이 보채고 석션을 하거나 그러려면 뭔가를 집어 뜯고 그러죠. 보호복을 쥐어 뜯고요. 고글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마스크를 쥐어 뜯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참여자 15>

“조금 많이 이제 협조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옷을 잡아당긴 적이 있었거든요. 마스크랑 이런 것들 얼굴 캡(페이스 쉴드) 이거를 확 잡아당긴 적이 있었어 가지고 사실 보호 장구를 입는 행위 자체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보니까 성인이나 소아나 크게 다를 거는 없는데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소아는 아기들이 막 잡아당기고..” <참여자 16>

하위주제 2: 마스크 착용을 못 하는 확진 환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지만, 영유아의 경우 현실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소아병동의 간호사들은 확진 환아의 비말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완전 애기들은 마스크를 못쓰니까.. 근데 개네들이 당연히 증상이 있으니까 기침하잖아요. 물론 4중보호구는 입고 있지만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본가에 못 가겠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소아 환자가 나한테 이렇게(기침)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뭔가 다 뒤집어썼을 텐데, 그랬다가 내가 그거(바이러스)를 부모님한테 옮길까 봐 본가도 못 가겠고 이렇더라고요. 잠복기를 계산해 보고 잠복기가 끝나면 집에 갈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것도 계산해 보고 그랬었어요.” <참여자 20>

“아기들 마스크 안 써서 이제 그냥 (이송) 갈 때 시트라도 이렇게 덮어서 가라~ 그렇게 많이 하고, 아니면 저희 그냥 일반 서지컬 마스크 같은 거 하나씩 드리면서 이거라도 너무 크지만 이거라도 그냥 해줘라 약간 그런 식으로도 하고..” <참여자 17>

하위주제 3: 환아의 분비물에 더 많이 노출됨

환아는 스스로 가래를 뱉어낼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에어로졸 발생 처치인 흡인을 더 자주 시행해야 했고, 그 결과 감염원에 노출 빈도가 잦아지면서 감염이 참여자들에게 전파됐다고 느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코로나 검사를 나가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환자를 밤 동안 석션을 하다가 결국 그날 그 환자도 확진이 되고 저도 확진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런 매개체고 그런 건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사실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N95를 쓰지 않았었는데 석션을 계속해 주고 하다 보니 아마 그 애도 코로나니까 그런 가래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더 그런 처치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서” <참여자 3>

“포크랄 같은 거 먹이는데도 사실 아기가 다 (입이) 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입도 다 벌리고, 울고.. 석션할 때도..” <참여자 18>

주제 3: 감염관리 지침을 지키기 위한 간호사의 고군 분투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유증상·확진 보호자 즉시 퇴실, 상주보호자 1인 제한, 상주 보호자 교대 금지와 같은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염관리 지침이 소아병동 현실과 맞지 않아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감염관리 지침에 대해 불만이 생긴 보호자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간호사에게 쏟아냈고, 업무 중 감염관리 원칙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 또한 참여자들의 업무가 되었다.

하위주제 1: 소아병동과 동떨어진 감염관리 지침

소아병동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상주보호자 외 다른 보호자의 임시 출입도 전면 제한하였다. 소아병동에서는 보호자 관련 기본 지침에 강화된 감염관리 지침이 적용되었지만, 소아병동의 현실은 잠시도 보호자가 환아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소아가 힘든 게 그런 거 것 같아요. 이제 보호자가 깔려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만든 지침으로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환자는 괜찮은데 보호자가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나갔는데 결과가 positive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환자는 (노출자로) 검사하고 보호자는 병원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호자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바뀌 줄 보호자가 없다. 이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보호는 양성인 채로 환자는 음성인 채로 1인실에 같이 있는 거죠. 이런 이상한 상황” <참여자 12>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손이 많이 가고 이제 잠도 부족하고 독박육아가 결국에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힘든 점은 정말 이해가 돼서 우리도 (상주 보호자) 두 명을 해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한 명 두 명 해주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럼 다 이제 두 명이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두 명이 안 되냐라고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여자 17>

하위주제 2: 상주 보호자 제한의 어려움을 간호사에게 투사함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한 병동의 상황은 아픈 아이를 혼자 돌보는 보호자를 힘들게 만들었다. 팬데믹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보호자들이 호소하는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불만을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였다.

“하.. 보호자 컴플레인이 많았었죠. 진짜 이걸 좀 황당한 경우였는데 보호자가 환자와 짐을 동시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엘리베이터 안에 두고 짐을 가지러 갔고, 근데 버튼 또 눌러 놓으셨나 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환자가 또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짐 가지러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가 애가 3개월이었나.. 암튼 엘리베이터가 쏙 올라가 버려서 보안관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보호자 팔찌가 있어서 저희 병동에 전화가 와서 저희가 (환아를) 병동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엄마는 또 애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애가 이렇게 사라져도 괜찮냐면서 진짜 오랫동안 컴플레인을 했었던 기억이 있구요.” <참여자 15>

“(1층) 밑에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밑에서 싸우고 병동으로 전화 오고 그러고, 그냥 (병동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주 보호자에게 원칙적으로 치료 과정 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애 엄마가 잘 이해를 못 하면 매일같이 (환아) 아빠가 병동으로 전화해 가지고 설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희가 교대 못하게 했으니 전화로 설명해라.. 그런 상주 보호자 관련해서 저희와 트러블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16>

“아기들이니까 짐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분유 포트, 젓병 소독기, 역류 방지 쿠션, 아기 타이니모빌.. 이런 게 진짜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거 짐을 다 바리바리 들고 오지를 못해요. 전화랑 문의가 진짜 많이 오는 게 짐만이라도 두고 갈 수 없냐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안내문까지 만들었잖아요.” <참여자 20>

하위주제 3: 환아 옆에 있으려고 COVID-19 증상을 숨기는 보호자

COVID-19 관련 증상이 있을 시 병원 내 상주보호자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간호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않으려 했고,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보호자들의 달라지는 진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다른 보호자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들의 갑작스러운 퇴실 역시 병

동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유증상인데 약간 이제 속이시는 거죠. 증상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몰래 약을 먹는다면.. (코로나) 증상만 있어도 거의 바로 (집으로) 가라고 했었어서.. 근데 그걸 (보호자가) 리퓨즈 하시고 하면 또 설득하는 게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참여자 19>

“상주 보호자 (문진표에) 유증상으로 체크를 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유증상이면) 이제 (집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잠깐잠깐 그냥 찬바람 쐬서 그렇고 자기 원래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참여자 20>

범주 3: 환아보다 보호자의 간호사가 됨

본 범주는 ‘확진 환아와 함께 줄줄이 확진되는 보호자’, ‘상주 보호자를 위한 간호업무가 더 늘어남’의 2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제 1: 확진 환아와 함께 줄줄이 확진되는 보호자

아기와 함께 밀착생활을 하는 보호자는 환아의 확진과 함께 결국 확진 보호자가 된다. 확진 보호자는 퇴실이 원칙이지만 많은 경우에 보호자는 퇴실을 거부하고 환아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담당간호사는 확진 보호자의 COVID-19 증상을 지켜보며 부담을 느꼈다.

하위주제 1: 확진 보호자가 환아 돌봄을 지속하려고 버텨

아기와 함께 병동에 상주하기 위해 COVID-19 관련 증상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확진이 되는 경우에도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병동에 머무르기를 원했고, 환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다른 보호자를 구하는 일을 병동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그것도 어려운 경우

결국 보호자 확진이라도 병실에 환아와 함께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다인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호자가 검사상 확진이 나왔는데 가라고 해도 퇴실을 안 하고 계속 옆에 있는 거야. 자기밖에 볼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환자를 보호자를 보내려고 그 아들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가고 계신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도 못 온다 하면서.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간병인까지 저희가 막 다 알아 봐주고. 그 간병인 연락도 저희가 하고. 우리가 간병인 알아봐 주고 아들한테 연락하고 하는 과정이 거의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참여자 14>

“상당수가 아기가 확진되고 엄마도 같이 확진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사실 엄마도 많이 아픈데 엄마도 확진되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아픈 아기를 케어를 하려다 보니까 그 힘든 게 저희한테 투사가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참여자 16>

하위주제 2: 확진 보호자의 증상에 대해 부담을 느낌

환아와 함께 1인실 병실에 격리되어 있는 COVID-19 확진 보호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병실에 함께 있으면서 환아와 함께 간호받기를 원하였다. 보호자가 COVID-19에 감염되어 힘들어하는 모습, 아픈 몸으로 아픈 아이를 간호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등을 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참여자들은 보호자까지 간호해야 하는 부담을 느꼈다.

“환자도 보호자도 열나고 막 기침에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애를 못 보겠다, 자기도 약 좀 받으면 안 되냐 말씀하시니까. 이럴 경우에 간호를 두 명 하는 기분? 나는 환자도 봐야 되는데 엄마가 저렇게 나오시니까 적극적으로 (환아 돌보기를) 해달라는 말도 못 하겠고, 약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긴 했고..” <참여자

주제 2: 상주 보호자를 위한 간호업무가 더 늘어남

보호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소아의 특성상 참여자들은 병동에서 보호자의 COVID-19 정기검사(연구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와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입원 3일, 7일, 14일, 28일째에 COVID-19 정기 검사를 시행함)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하였다. 이렇게 상주 보호자를 위한 간호 업무가 증가되었고, 보호자들의 각종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였다.

하위주제 1: 상주 보호자 코로나 검사 시행과 결과 확인 업무가 추가됨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참여자들 근무 병원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의 COVID-19 정기검사를 시행하였다. 성인 환자의 보호자는 직접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시행했지만, 소아병동에서는 보호자 검사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담당간호사가 수행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업무량 증가에 부담을 느꼈다.

“코로나 상황에 챙겨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성인은 보호자한테 코로나 검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는(소아병동) 우리가(간호사) 했어요. 보호자한테 내일 검사할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수납하시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진짜 몇 배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인력이고, 일은 더 늘어났는데 그냥 뭔가 간호사를 갈아서 또 뭔가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6pm까지 근데 만약에 이브닝 리더인데 치료실에 안 좋은 환자가 있어 가지고 나는 개를 케어해줘야 되고 아니면 팀이 너무 바쁜 팀이 있어서 거기 도와줄 수도 있는데, 6pm까지 상주 보호자 코로나 검사 명단 보내야 되니까 마음이 타는 거예요. 6pm까지 이거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스트레스였고.” <참여자 20>

“(상주 보호자 스크리닝 검사를 하기 위해) 입실한 지 3일째를 거르고 그 다음에 확진 후 해제자 또 걸러서 리스트 작성을 해서 리스트를 (원무과

에) 보내고 나이트 때는 또 리스트를 또 띄워서 이 사람이 바코드가 생성되는지 확인하고 또 출력하고 데이는 또 그거를 검사를 다 했는지 확인하고 접수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브닝이면 또 결과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되게 로딩이었고..” <참여자 6>

하위주제 2: 산후 우울증,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보호자로 인한 당혹스러움

당혹스러운 일들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였다. 고열, 두통과 같은 보호자들의 신체적 증상과 달리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접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격리병실에) 갇혀서 있었거든요. 산후 우울증이 같이 오면서 아예 아기를 안 보시고 거의 잠만 자시고 하면서... (중략) ... (보호자가) 아기를 떨어뜨릴 것 같다, 나는 아기를 못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정말 작은 영아 환자가 확진 됐을 때 보호자를 같이 케어하는게 어려웠던 점이 기억이 납니다... (중략) ...그때는 좀 막막하고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참여자 19>

“(환자와 보호자가) 이제 일주일 정도 격리하게 됐는데 보호자한테 설명하러 가니까 보호자가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기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그 공황 증세가 시작되면서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약을 당장 어디서 구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참여자 4>

하위주제 3: COVID-19 노출로 격리 중인 보호자의 왕진 진료 연계함

이동이 불가하고 외부의 도움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병동에 배정된 공식적인 환자는 아니었지만, 격리 중인 보호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전문간호사 선생님 통해서 가정의학과 잡아서 피부질환 같은 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본 적도 있었고.. (격리 중인) 보호자가 등 인가 어디에 수포가 올라왔어요. 이게 좀 걱정 됐던 게 대상포진 일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여서 그것도 열심히 헤드렸던 기억이 나요.” <참여자 18>

“100일 미만 영아의 경우 상주보호자 1인이 입실함에 따라 주로 어머니가 입실하게 되는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아이 수술을 위해 입실하면서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제발 도와 달라고 표현하는 보호자들도 꽤 있었고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연계해줘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보호자도 있었어요.” <참여자 4>

범주 4: 소아병동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혼란이 있음

본 범주는 ‘베이비시터가 된 간호사’, ‘간호업무 대신 보호자의 사적업무를 맡아줌’의 2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제 1: 베이비시터가 된 간호사

팬데믹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근무병원에서는 상주하는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했고, 보호자들의 교대도 불가하다는 감염관리 원칙이 있었다. 이러한 원칙은 소아병동에서도 예외가 없었으며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아픈 아이를 혼자 돌보는 보호자들은 지쳐갔고, 간호사들은 힘들어하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보호자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었고, 보호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간호업무 외 아기를 돌보는 업무를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하위주제 1: 보호자의 확진으로 간호사는 환자의 보호자가 됨

참여자들은 감염병으로 퇴실한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사의 역할이 아닌 한 명의 환자만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확진된 보호자)엄마는 지금껏 (환아와) 같이 있었는데 그냥 본인이 있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원칙이 그게 아니니까.. 결국 보호자 퇴실하시고 (간호사) 누구 더 나올 사람은 없고.. 그냥 4중(보호구)하고 카트 가지고 들어가서 일하면서 애기 봤어요. 돌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분유 조제부터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엄마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중략) ...지금 생각하면 해프닝일 수 있는데 그땐 진짜 힘들었어요. 업무 로딩이고..” <참여자 4>

“보호자가 퇴실하고 아기 엄마 다음 보호자 오는데 뭐 3시간 걸린다 그랬나? 그래서 그때 막 병동에서 돌아가면서 30분씩 다른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막 30분씩 아기 봐주고.. 심지어 1인실에서.. 안 그래도 한 간호사당 10명씩 보는데 한 간호사가 그 확진자를 본다고 1인실 방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9명에 대한 응대를 이제 다른 간호사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진짜 업무 로딩이 정말 정말 많이 됐었죠.” <참여자 5>

하위주제 2: 소진된 보호자를 대신하여 업무 중 환아를 돌보게 됨

참여자들은 간호 업무에 추가하여 우는 아이 달래기, 기저귀 교환, 우유 먹이기, 아기 재우기 등의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베이비 시터처럼 아기를 돌보는 일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에 소아병동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었다.

“교대가 안 되니까.. 애가 계속 울고 보채고.. 안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으면 안 자는 거예요 신생아여서. 신생아는 보통은 두 분이서 있어서 한 분 이렇게 할 때 자고 쪽잠 자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저 여유

가 있을 땐 가끔씩 애 보면서 일하고.. 하하.. 다른 모든 병동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소아는..” <참여자 15>

“그리고 가끔은 진짜 내려놓기만 하면 이제 우는 그런 아기들도 있어서 그럴 때 그냥 안고 나와 가지고 조금 한가로울 때 이제 저희가 보면서 엄마한테 조금 한 30분이라도 좀 쉬셔라 제가 밖에서 조금 보고 있겠다~ 이라고서 이제 아기 안고 컴퓨터 작업하고 그런 적도 있기는 했어요.” <참여자 17>

“기저귀 갈 줄 몰라요 아기가 너무 울어요. 아기가 왜 이렇게 울어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하면서 아기 좀 봐 달라고 자기 좀 자겠다고 그런 보호자들도 있었고.. 나이트 때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혼자 보는데 진짜 너무 갓 출생한 애였거든요. 한 3일?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애였는데 엄마도 이제 첫째 애고 엄마가 혼자 애를 보는데 엄마도 엄청 막 비리비리하고.. 근데 (엄마가)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하고 계셔서 나이트 때 좀 한가해서 어머니 좀 주무시라고 하고 제가 애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참여자 5>

하위주제 3: 간호사에게 환아를 맡기고 보호자가 개인 업무를 수행함

어느덧 보호자들은 병동 간호사에게 아기를 맡기고 일정시간 자신은 개인 업무를 수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보호자 부재 시 아기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소아병동 간호사의 업무가 되어버렸다.

“짐 받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마트 간다고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30분, 40분 동안 보호자가 안 와서 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갓 난쟁이, 몇 개월, 3~4개월 된 침대에 있는 애들. 그리고 자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이런 경우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진짜.. (아기) 지금 혼자 있는데 좀 봐달라 보호자가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을 것 같긴 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돼서 (보호자에게) 전화까지 한 경

우도 있고 언제 오시냐고. 환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20분? 30분? 봐주는 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4>

하위주제 4: 독박 육아에 힘들어진 보호자가 환아를 두고 집으로 가버림

신생아를 혼자 돌보기 버거웠던 보호자는 담당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나 대안이 없는 채로 신생아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떠나버리는 상황도 생겼다. 아이를 위해 증상을 숨기면서까지 병실에 함께 있고 싶어 했던 보호자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현상이었다.

“엄마가 도저히 자기는 (애를) 못 보겠다. 해서 그러면 1회에 한해서 교대를 하겠다 해서 엄마는 나갔고 아빠 올라오세요. 했는데 아빠가 오는데 6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저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일절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본인이 힘드니까.. 그래서 (간호사) 한 명이 아예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 환아만 케어를 하고 저희는 갑자기 부랴부랴 남은 팀을 썩 다 재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이 한 명 없는 상태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참여자 16>

주제 2: 간호업무 대신 보호자의 사적업무를 맡아 줌

아기를 돌보는 업무 이외에도 다른 보호자가 한 명 더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일들을 병동 간호사가 대신하게 됐고, 격리 중인 1인실에서 병실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간호와 관련된 업무보다 환자와 보호자의 사적인 업무까지 담당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하위주제 1: 이삿짐처럼 많은 환아의 짐을 같이 옮겨줌

아이와 함께 집 앞에 잠시 외출만 하더라도 짐은 한가득이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아의 짐은 실제로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들고 오는 모양이었다. 환아를 안고 유모차를 끌고 두세 개씩 되는 입·퇴원 짐가방을 옮겨 줄 다른 보호자의 입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짐들은 참여자들이 옮겨주어야 하였다.

“짐은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유모차는 기본이고 짐이 진짜 엄청 많이.. 그 아기들 밑에서 까는 매트까지도 다 갖고 오셔 가지고 짐이 엄청 많았는데, 다른 보호자가 (같이) 못 올라오니까 제가 내려가지고 같이 갖고 왔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기 맡기고 내려갔다 오셔라 했는데 애가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랑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내려가서 끌고 왔거든요. 간호사가 2명이 간 거죠. (다른 간호사에게)같이 가자고 할 때 되게 미안했어요.” <참여자 6>

하위주제 2: 환아의 물품 구입을 위해 근무중 마트에 다녀오거나 택배 운반 업무를 시행하게 됨

환아들에게 필요한 물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부분 미리 준비해오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물품이 부족할 경우, 이동할 수 없는 보호자 대신 마트에서 환아 물품을 구매해 오거나 택배나 배달음식을 전달해 주는 일도 하게 되었다.

“당장 필요한 짐이 있다고 요구하거나, 애가 당장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조르는 경우가 생기면 담당간호사가 직접 물품 구매를 하러 마트에 내려가거나 (택배)짐을 대신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이 꽤 자주 있죠.”<대상자 4>

“기저귀 다 떨어졌다고 하면 기저귀도 사다 줘야 되고” <참여자 16>

“택배, 각종 짐 운반 정말 많이 해봤어요. 분유, 이유식, 음식 그리고 진짜 택배 갖다 드리기 이런 거는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요. 힘들었어요. (특별한) 생우유를 꼭 먹어야 되는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우유는 또 시간이 좀 오래되면은 이게 변질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1층) 내려가서 그 생우유를 가져왔어요.” <참여자 18>

“꼭 환자식 말고 밖에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큰 애들은.. 아니면 안 먹겠다고 난리를 쳐서..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떤 선생님은 배달 음식을 1층 내려가서 가져다 주신 적도 있으세요.” <참여자 15>

하위주제 3: 보호자 대신 환아의 음식을 준비함

COVID-19 격리 상황과 상관없이 환아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은 다양했고, 이동 제한으로 다용도실이나 온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참여자들이 직접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라면을 끓여야 하였다.

“저는 진짜 음식 리조또 데워드리는 것도 진짜 많이 해드렸고 그다음 스파게티 먹고 싶다 해서 밖에 나와서 면담실에서 스파게티도 해드렸고 그리고 분유도 뜨거운 물 타달라 해서 분유도 타드렸고..” <참여자 18>

“우유를 데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3시간마다 feeding 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분유 포트가 없으면 저희가 그 분유를 데워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보온병이 있으면 거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주고 엄마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없으면 분유를 데워다 드렸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소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성인은 밥 데워주진 않잖아요.” <참여자 20>

하위주제 4: 환자 때문에 격리가 된 보호자의 요구 처리

격리되어 있는 보호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였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보호복을 입고 병실에 입실해서 해결했지만, 이 시간이 환아를 간호하는 시간이라고 느끼기는 어려웠다.

“라면 물 받아달라고 하는 것, 식판 치워주고, 커피 타주고.. 그런 거 해줬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환의 갖다 줬는데 이거 말고 뽕뽕한 걸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거 진짜 짜증 났어요. 그럴 거면 그냥 (직접) 갖고 가지 그냥 (격리 병실 밖으로) 내보낼까.. 이런 생각했어요..”

<참여자 1>

“아무래도 격리를 해야 되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콜벨 같은 것도 약간 엄마가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보호자가 해야 되는 역할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될 때 사소한 거 때문에도 이제 몇 번을 보호 장구를 입어다 벗었다 하면서 들락날락하는 거 그런 게 조금 번거롭기는 했지요. 예를 들어서 방금 해열제를 주고 나왔는데 엄마가 선생님 죄송한데 룡 거즈 조금만 갖다 주세요. 그럼 또다시 룡 거즈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그냥 이런 그러니까.” <참여자 13>

범주 5: 개선되는 상황들

본 범주는 ‘병원과 병동 차원의 지원을 받음’, ‘보호자와 간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의 2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제 1: 병원과 병동 차원의 지원을 받음

느닷없이 찾아온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 환자에게 제공하는 병원차원의 지원과 확진환자 간호에 인력을 지원한 어린이병원 차원의 지원, 확진자 담당간호사를 배려하는 병동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고마움을 느끼고 감염병 상황을 견딜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위주제 1: 병원에서 택배 전달, 마트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줌

COVID-19 격리 초반에 참여자들이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간호가 아닌 업무들로 힘들었던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원에 고마운 마음을 말하였다.

“뭔가 코로나가 더 성행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 병원이 그거에 맞춰서 잘 체계를 맞춰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좀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택배 지원 같은 거 처음엔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후엔 택배 오면 밑에 이제 안내 데스크 선생님들이 다 올려 주시고 이런 것들도 좀 고마웠고요.” <참여자 2>

“저희 병동 코로나로 폐쇄 됐을 때 처음에는 보호자가 필요한 물품이나 먹고 싶은 과자가 있다고 하면 근무 끝나고 마트 가서 사다 주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마트에 있는 물품 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하면 법무팀인가? 물품 사다 주고 그랬어요. 리스트랑 카드 받는 것도 일 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웃음)” <참여자 6>

하위주제 2: 추가 인력의 도움을 받음

소아병동에 COVID-19 팬데믹 상황이 더해져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업무들이 많아지자 추가 인력을 시간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참여자들은 한 숨 놓을 수 있었다.

“EIDT 선생님들? 감염관리 대응을 해주러 오시면서 같이 중환자도 봐주시고 뭐.. 저희가 마지막쯤에 도움 받은 거는 그런 거? 아무래도 환자한테 가야 되는 건 어쨌든 담당 간호사니까 그 이상의 뭔가 다른 걸 준비해 주신다던가 그런 게 도움이 되긴 했었던 거 같아요. 중환자를 같이 옆에서 봐주신다던가? 그런 것들” <참여자 8>

“EIDT라고 감염 대응팀에서 인력을 보내줘서 몇 시간 더 인력을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아예 거기(확진환아 병실)에 keep하면서 아기를 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9>

하위주제 3: 병동에서 확진 환아 담당간호사의 환자수를 조정해 줌

병동에서 확진 환아를 담당하는 담당간호사의 환자수를 조정해서 배정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초반에 확진 환자 볼 때는 조금 환자 수를 줄여 주셨었잖아요. 그때는 뭔가 그래도 확진 환자가 부담스럽다는 걸 이해해 주는구나 약간 이런 거는 있었고.. 나를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17>

주제 2: 보호자와 간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

격리 환자의 간호가 계속되면서 처음에는 당황했던 참여자들이 환자 간호에서 보호자를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가족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면서 환자의 보호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욕구에 접근함으로써 보호자에게 지지가 되었고,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보호자들의 한마디로 병동 간호사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위주제 1: 격리 중인 보호자의 우울감에 공감함

평소 병동 상황과 다른 격리 상황에서 참여자들도 어려움을 느꼈지만, 1주일 이상 병실에 갇혀 지내면서 생기는 보호자의 우울감에 대해서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음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환자는 또 이 안에서 밖에 활동을 못하고 그 갇혀 있는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그런 면에서도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조금 우울감이나 약간 기분이 조금 다운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참여자 1>

“(격리 상황으로 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호사가 정서적 지지도 해주고 또 많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 싶지만, 내가 이 환자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참여자 12>

“코로나 확진자에 한해서는 보호자분이 한 분 더 와서 케어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호자들이) 그 안에 갇혀서 혼자 있는 게 되게

우울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혼자 아기랑 뭘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좀 정서적으로 낫지 않을까” <참여자 1>

하위주제 2: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보호자를 지지해 줌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개인적이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환아의 보호자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개인과 병동 차원에서 보호자들에게 마음을 전하였다.

“(환아) 엄마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환아) 아빠가 신관 1층에 커피를 맡겨 놓고 그 커피를 저녁 8시에 받으면 맨날 다녹은 커피가 온다는 거예요. 신관 현관 안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시간이 맨날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커피가 자기의 유일한 낙이라면서.. 그래서 그냥 제 거 이브닝 때 커피 사면서 엄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번 사드린 적 있어요.” <참여자 20>

“저희 부서 내에서 엄마들 커피도 사드리고 그랬잖아요. 도시락도 사드리고 그랬더니 좀 마음이 누그러지셨고 그전에는 우는 엄마들도 있어서 정신과 진료도 보고 그랬었는데.. 엄마들도 저희 간호사 탓을 하는 건 아닌 건 알지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 4>

“병동 유엠님이 어느 날은 그 보호자가 혹시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서 밑에서 줌 사다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그 소독 식기상에 나오는 밥이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요. 뻥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 리프레시를 해 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참여자 12>

하위주제 3: 격리 간호의 힘들음을 알아주는 보호자들에게 위로 받음

긴 시간을 병원에 있으면서 감염병 유행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며 보호자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참여자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었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보호자가) 그 가운을 벗고 입고하는 거를 힘든 걸 아시니까. 그래도 보호자분이 진짜 알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입고 한 보람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간호사들이) 가운 입고 그런 거 힘든 거를 알아줄 때가... 그런 게 일반 환자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엄마 스스로 ‘선생님이 가래도 많이 뽑아 주시고 하셔서 좀 아기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면 좀 약간 보람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도 그런 의사 표현이나 아니면 뭐가 좋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잘해드리고 싶고..” <참여자 18>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업무를 했을 뿐이거든요. 아기가 활동성이 많다 보니까 (수액) 라인 꼬인거 다 풀어드리고, 아니면 열날 때 얼음팩 가져다 드리고, 그런 제 일을 하는데도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점들이 조금 감동이었고..” <참여자 17>

범주 6: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여 간호 역량이 높아짐

본 범주는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함’, ‘COVID-19 확진환자 간호에 자부심을 느낌’의 2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제 1: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함

우리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그동안 실무에 적용해본 적은 없었던 상황들을 직접 수행했고 성공 경험을 얻었다. 그 결과 감염병 유행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확진환자 격리로 추가 전파를 예방하여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을 느꼈다.

하위주제 1: 새로운 업무를 해냄

감염병 상황에 대해 병원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할 상황이 없었다. 하지만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일들을 시행착오와 함께 직접 경험하면서 한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확진환아를) 음압 캐리어에 넣어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ambu bagging를 하면서 CIC에 있는 CT실에 가서 CT를 찍고 그리고 P2에 다시 인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짜 지침에 있는 그걸 내가 하네?... (중략) ...그리고 며칠 뒤에 146에서 또 확진자가... 개도 되게 안 좋은 애였는데 그래서 개도 똑같이 intubation 하고 또 vent(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러고서 또 음압 캐리어에 또 넣어서 또 P2로 보내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 해봤잖아요. 음압 캐리어에 넣고 이송팀 불러서 하는 거 두 번째 해보니까 뭔가 손이 착 맞더라 그런 느낌? 뭔가 그 지침에서 봤었던 거가 진짜 되네~ 이런 게 신기했었던 같아요. 진짜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참여자 20>

“음압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침대에 (환아를) 넣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intubation 하고 ambu bagging 하고 있고 막 약도 줄줄이 달고 있고 모니터도 줄도 있고 그걸 이제 (음압 캐리어에) 환자를 넣는 그 시간만 40~50분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지체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힘들었어요. 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인데도 이게 잘 손발이 안 맞을뿐더러 인튜베이션 이튜브를 고정하고 ambu bagging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애를 옮기고 끌어내고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중략) ...근데 만약 제가 다시 그 일을 한다면 그 침대를 넣을 때는 아무런 뭐 이런 줄 연결 없이 환자만 쪽 넣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걸 그걸 이제 알죠.” <참여자 12>

하위주제 2: 확진 환아 격리에 성공하여 추가 전파를 예방함

일반병동에서 확진 환아를 간호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 비감염 환아에게 감염

병이 전파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갖게 하였다. 격리만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확진 환아를 간호하면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고, COVID-19가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보람을 느꼈다.

“일반 소아병동이지만 다른 환자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격리를 잘해서 다른 환자들한테 전파가 없이 환자가 잘 치료돼서 퇴원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9>

“그냥 무사히 격리 해제가 되면, 무사히 격리 해제가 되고 무사히 퇴원을 하면 그래도 약간 일단 저희는 소아니까 엄마들도 같이 있으니까 약간 엄마랑 뭔가 전우애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래도 엄마랑 같이 코로나를 잘 이겨냈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그냥 그런 거(웃음)” <참여자 13>

주제 2: COVID-19 확진 환아 간호에 자부심을 느낌

COVID-19 확진환아를 일반병동에서 간호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확진환아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중증도가 있는 확진환아를 간호하면서 소아병동 간호사로서 자긍심을 느꼈다. 또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도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위주제 1: 기저질환으로 전원이 어려운 확진 환아를 간호했다는 뿌듯함

기저질환으로 타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중증도의 환아를 간호하면서, 내가 소아 확진자 간호를 하고 환아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하였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들은)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다른 병원 가면 당연히 원래 가던 병원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밖에 없어서 이제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밖에 없겠구나 우리(병원)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더 잘해주고 싶

고 그런 데서 이제 보람을 얻는 것 같아요.” <참여자 12>

“저는 확진자를 간호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하기도 하면서 뭔가 그냥 그 자체 근무가 끝나고 나면 저는 그냥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확진자 내가 오늘 봤다! 그 자체가 좀 보람 있게 느껴졌던 것 같고...(중략)...그냥 다른 병원 간호사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거.. 왜냐면 거긴 정말 확진자 병동에서만 확진자를 보는데 저희는 소아 확진자를 보고 이런 걸 좀 되게 신기하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참여자 3>

“경험 쌓이는 거. 간호 경력에 확진자 간호를 해봤다는 경력이 쌓이는 거. 그리고 주위에서의 조금 대단하다, 사명감 있다, 이런식으로 봐줬던 거 좋았어요.” <참여자 14>

하위주제 2: 또 다른 팬데믹 상황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COVID-19 확진환자 간호라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소아병동에 COVID-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진 상황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질병의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만약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 생기더라도 이게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했던 게 경험이 돼가지고 다른 새로운 전염병이 생기더라도 우리 병원이 대처를 잘하지 않을까.” <참여자 14>

3. 현상학적 글쓰기

현상학적 글쓰기는 연구 분석을 통해 나타난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에서 확인된 의미 있는 진술문을 총체적으로 서술하고, 경험에서 확인된 각각의 주제와 주제 군의 공통적인 요인을 통합하여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한 것이다.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의 현상학적 글쓰기는 다음과 같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COVID-19 확진 환자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였다. 병원은 확진자 격리를 위한 격리 병동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COVID-19 확진자 간호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격리 병동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소아 환아를 간호한 경험이 없었고 소아 확진의 경우 대다수가 보호자도 함께 확진되었기 때문에 격리 병동에서 수용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COVID-19 확진 환아 간호는 일반 소아병동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확진자 간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출근 후 환자 파악을 하면서 내가 오늘 COVID-19 확진 환아 담당간호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일반 병동에는 전실(anteroom)과 같은 격리 시설이나 병실 내부의 환아를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없었고, 참여자들은 Level D 방호복이 아닌 4종 보호구(장갑, 가운, 고글,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확진 환아를 간호해야 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해졌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품에 대한 소독 업무도 추가되었고, 일반 환아와 확진 환아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환경이나 물품, 담당간호사로 인한 교차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부담감도 느끼게 되었다. 확진 환아 간호로 일반 환아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느꼈고, 일반 환아 보호자들이 확진 환아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기피하는 불편한 시선을 느끼면서 일반 병동에서 COVID-19 확진 환아 간호가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소아 COVID-19 격리는 성인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소아는 모든 처치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확진 환아 보호자의 간호에 대한 간섭은 커져갔다. 환자의 격리 기간은 최소 10일로 성인 환자 격리보다 3일이 길었으며, 환자의 격리가 끝날 때쯤 보호자도 확진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확진된 보호자로 인한 환자의 격리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였다. 끝나지 않는 COVID-19 격리에 간호사를 보호해

주는 유일한 장비인 4중 보호구는 환아들에 의해 훼손되고, 환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면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은 COVID-19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COVID-19 감염관리 지침은 상주보호자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보호자 1명으로 케어가 어려운 소아병동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호자들은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간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감염관리 지침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고단한 소아병동 COVID-19 격리를 이어갔다.

성인 병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아의 옆에 항상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COVID-19에 확진된 보호자는 귀가하지 않고 환아 돌봄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환아와 함께 병실에 있는 확진 보호자는 여러 가지 COVID-19 증상을 호소하며 힘들어했고, 보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간호가 없음에 간호사들은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 또한 보호자 없는 환아는 없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상주 보호자와 관련된 추가 업무는 정확히 2배 이상이 되었으며, 환아와 함께 격리 중인 보호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정서적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보호자의 진료 의뢰까지 간호사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환아를 간호하는 시간보다 보호자와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고 감정을 소모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은 환아보다 보호자의 간호사가 된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

보호자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업무는 또 추가되었다. COVID-19에 확진된 보호자는 본인의 의지로 환아 옆에 머물렀지만 COVID-19 증상으로 환아를 돌보기 어려워 하였다. 일반 환아의 보호자들도 상주 보호자 교대가 안되고 길어지는 입원 상황에서 점점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환아 간호에 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없었다. 소아병동 간호사들이 보호자 대신 환아를 돌보기 시작했고, 보호자들은 간호사들이 환아를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환아를 맡기고 병동을 떠나 한참 동안 개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아만 남겨둔 채 귀가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보호자 대신 환아 수유, 기저귀 교환, 잠재우기와 같은 아기 돌보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아닌 베이비시터가 된 기분을 느꼈다. 또한 상주보호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보호자 대신 환아의 짐을 같이 옮겨주거나 환아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근무 중 마트에 다녀오거나 택배 운

반을 하기도 하였다. 보호자 대신 분유 준비나 환아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준비했으며, 격리 상황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요구처리도 해야만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아닌 보호자가 해야 하는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간호사 업무 경계와 소아병동 간호사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였다.

막막하게 닳친 상황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COVID-19 팬데믹을 정신없이 헤쳐 나가던 간호사들에게 병원과 병동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병원에서는 확진 환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줬고, 병동 차원에서도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배정된 환자 수를 줄여 주거나 추가 인력이 확진 환아 관련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소아라는 이유로 성인보다 긴 격리 기간이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그만큼 병실 안에 갇혀 생활해야 하는 보호자들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었다. 스스로 보호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간호사의 지지에 보호자들도 간호사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COVID-19 확진 환아 간호 경험은 또 하나의 간호 역량이 되었다. 일반 병동에서 확진 환아 격리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컸지만 추가 전파 사례 없이 성공적이었다. 또한 감염 환자를 위한 기구들(음압 캐리어, 음압 휠체어 등)의 사용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감염 환자 간호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면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였다. 기저질환이 있어 전원이 어려운 확진 환아를 간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라는 뿌듯함을 느꼈으며, 다른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환아와 보호자를 어우르는 간호를 제공한 소아병동 간호사들은 확진 환아 간호를 해냈다는 자부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간호 역량이 높아졌다.

V. 논의

본 연구는 일반 소아병동에서 COVID-19 환아를 간호한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간호 경험을 통해 심리, 환경, 간호 상황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 도출된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을 구성하는 범주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은 ‘일반 소아병동에서도 COVID-19 격리가 일상화됨’, ‘소아병동 COVID-19 격리로 인한 고단함’, ‘환아보다 보호자의 간호사가 됨’, ‘소아병동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혼란이 옴’, ‘개선되는 상황들’,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여 간호역량이 높아짐’의 6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일반 소아병동에서도 COVID-19 격리가 일상화됨’은 팬데믹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확진 환아를 간호하면서 소아 COVID-19 감염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사전 지식으로 소아병동 간호사들이 환아 간호에 부담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 질병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위한 초기 간호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Jung et al., 2022), 소아의 경우 그 사례가 성인에 비해 더욱 부족하므로 불충분한 질병 정보에 대한 두려움이 참여자들에게 더 크게 느껴졌다고 보여진다. COVID-19의 여러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장기간의 대유행이 지속됐고(Khan et al., 2020), 참여자들의 병원에서도 팬데믹 초기에는 COVID-19 전담병동을 운영했지만 확진자의 급증한 증가와 성인 환자를 위주로 한 전담병동에서 소아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 COVID-19 확진 환아는 소아 일반병동에서 감염 환아와 비감염 환아를 함께 간호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반병동 간호사들에게 전담병동과 똑같이 감염관리를 위한 환자 격리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잦은 개인보호장구 착용·탈의 및 소독 업무가 추가되었지만(Jung et al., 2022), 국가 차원의 정책 및 권고사항은 일부 COVID-19 전담병원 및 전담병동의 간호인력에만 적용되었고(Woo, 2023) 성인과 소아가 구분되지 않는 정책으로 COVID-19 전담 병동도 아니고 성인 환자도 아닌 소아병동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소아병동 COVID-19 격리로 인한 고단함’에서는 성인 격리와는 다른 이유로

참여자들이 격리환아 간호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아는 말이 통하지 않고 스스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기본 처치에 있어 난항을 겪었다. 힘겨운 확진 환아 격리는 성인 확진 환자 격리기간 보다 기본 3일 이상 길었고, 여기에 보호자 확진까지 더해져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감염병 격리를 계속해야만 하였다. 간호사에게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하여 간호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종감염병 환자를 간호하는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Armentz et al., 2020)가 있으나, 간호사들은 COVID-19 환자 간호 시 방호복을 착용해도 COVID-19 감염에 대한 불안이 가득함을 느꼈다(Kim et al., 2022). COVID-19 환자를 간호하면서 감염원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보호구는 환아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훼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보호구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였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소아의 특성으로 비말 또는 공기 등을 통하여 전파되는 COVID-19에 더 많이 노출됨을 감수하면서 확진환아 간호를 이어갔다.

‘환아보다 보호자의 간호사가 됨’에서는 소아병동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환아에 국한되지 않고 보호자까지 그 영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소아병동에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환아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 부모는 환아의 선호와 기대를 표현하는 파트너이다(Choi & Bang, 2010). 하지만 COVID-19 유행상황에서 영유아 어머니들의 68.9%가 불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증 불안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Lee et al., 2021). 소아의 보호자들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침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감염병 증상을 숨기거나 환아와 함께 확진될 경우 퇴실을 거부하였다. 격리 상황에서 보호자들에게 각종 신체·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함께 발생하면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은 환아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보호자를 함께 돌보게 되었다. 간호사들이 COVID-19 환자 간호 시 개인위생과 일상적인 돌봄부터 환자에게 심리 정서적 간호를 제공하는 등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간호를 수행하였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22)와 비교하였을 때, 소아병동에서 간호사가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대상자는 보호자도 포함되며 그 과정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업무의 증가와 함께 부담과 당혹스러운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되었다.

‘소아병동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혼란이 있음’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제한된 상황에 갇힌 보호자들을 대신해 참여자들은 환아를 돌보는 업무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택배물품 전달, 음식 배달 등의 간호 외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COVID-19 환자 간호 시 격리된 환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위생을 챙기고 필요한 외부 물품을 전달했고(Kim et al., 2022),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전문직 역할의 혼돈을 느꼈다는 선행연구들(Dorothy et al., 2021; Hyeon & Chae, 2021; Jin & Lee, 2020; Kang et al., 2021)과 유사한 결과였다. 다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기술한 추가 업무로는 환아 기저귀 교환, 분유 먹이기 등과 같은 환아를 돌보는 업무들의 비중이 높았음에 차이가 있었다. 소아병동에서 보호자들의 요구사항 해결은 간호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Kim, 2019), 팬데믹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육아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 아기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 COVID-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업무 중 절반 정도는 간호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직접간호가 아닌 업무들이었다(Jung et al., 2022).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업무들 역시 간호기록으로 남겨 공식적인 업무량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아 간호와 환아를 돌보는 업무 사이에서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개선되는 상황들’에서는 참여자들은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이 증가했지만 병원과 병동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협력적 조직 분위기를 느끼며 공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COVID-19 상황에서 시행된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미흡한 지원과 역할 경계로 인한 어려움이나(Kang et al., 2021) 병원 내 환경 관리와 물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Jin & Lee, 2020)이 있었다. 하지만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Kim et al., 2022)하는 모습이 간호사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져 업무 체계가 조정되고 효율성이 높아져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보호자는 업무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았고, 공감하게 되었다. 과거 비슷한 형태의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이타주의를 근간에 두고 대상자의 돌봄에 대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자발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Jin & Lee, 2020). 본 연구에서도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돌봄 영역이 보호자까지 확대되면서

참여자들은 격리 상황에 대한 보호자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점이 선행연구와 비슷하게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여 간호 역량이 높아짐’에서는 일반병동에서 확진 환아를 간호하게 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불안과 혼란스러움을 이겨내고 전문가로서 간호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격리환자를 간호하면서 전인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성 확대와 자신감으로 이어지는데(Kim, 2017),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과중한 업무로 피로감을 느꼈지만 상태가 호전되는 환아를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아를 간호하였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응급실 간호사들이 사회적 지지와 격려를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꼈다는 선행 연구(Hyeon & Chae, 2021)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또 다른 신종 감염병과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실무적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 아동은 가족의 목표이며 가족체계 내에서 아동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Lee & Oh, 2016). 본 연구 결과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은 감염 환아 간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돌봄으로 간호에 대한 소명감과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응급실이나 선별진료소 같은 방역의 최전선이나 성인 COVID-19 환자 간호와는 또 다른 영역이다. 격리 환아를 간호하는 데 있어 소아병동 간호사의 감염 노출이 성인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병동 간호사의 감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아병동 간호사들에게 질병을 가진 환아에게 제공하는 직접 간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보호자와 관련된 업무들이 추가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업무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병은 미래 위기를 예상할 때 빠지지 않는 요인이고 감염병의 발생 규모와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반복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이 환아와 가족에게 직·간접적인 간호활동으로 전문적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끊임없는 관심, 제도적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COVID-19 유행상황에서 1년 이상 임상 경험을 가진 간호사로 만 3년에서 6년 동안 근무한 대상자의 수가 많았다. 따라서 신입 간호사나 장기 근무한 간호사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 대상 병원의 COVID-19 정책은 자료 수집 시점 이후로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참여자들은 통계 수치나 성인 COVID-19 환자를 간호한 경험을 연구한 선행 연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험과 상황을 겪었고, 그 안에서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존 질병과 신종 감염병을 함께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팬데믹 상황에서 발이 묶여버린 환아와 환아의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까지 함께 돌봤던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경험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포착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일관된 전인간호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소아병동의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간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또다시 마주칠 수 있는 새로운 질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성인 환자 간호와는 다른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알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COVID-19 유행상황에서 다기관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COVID-19 확진 환자를 간호한 성인병동 간호사들과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소진 등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rcadi, P., Simonetti, V., Ambrosca, R., Cicolini, G., Simeone, S., Pucciarelli, G., et al., (2021). Nursing during the covid-19 outbreak: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9(5),1111-1119. <https://doi.org/10.1111/jonm.13249>
- Brockopp, D., Monroe, M., Davies, C. C., Cawood, M., & Cantrell, D. (2021). Covid-19: The lived experience of critical care nurses.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51(7-8),374-378. <https://doi.org/10.1097/NNA.0000000000001032>
- Cho, E. J., & Bang, K. S. (2013).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nurse 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2),94-101. <https://doi.org/10.4094/chnr.2013.19.2.94>
- Choi, G. E. (2021). *A Study on Nurse's Job Stress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in the COVID-19 pandem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Choi, M. Y., & Bang, K. S. (2013).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2),194-202. <https://doi.org/10.4040/jkan.2013.43.2.194>
- Chung, S. J., Seong, M. H., & Park, J. Y. (2022). Nurses' experience in covid-19 patient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8(2). <https://doi.org/10.11111/jkana.2022.28.2.142>
- Colaizzi, P. F. (1978).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lehdar, N., Kamran, A., Toulabi, a., & Heydari, H. (2020). Exploring nurses' experiences of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care of patients with covid-19: A qualitative study. *BMC Psychiatry*, 20(1),489-498. <https://doi.org/10.1186/s12888-020-02898-1>
- Ha, B. Y., Bae, Y. S., Ryu, H. S., & Jeon, M. K. (2022). Experience of nurses in charge of covid-19 screening at general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 Korean Academy of Nursing*, 52(1),66-79.
<https://doi.org/10.4040/jkan.21166>
- Han, S. H., Kim, S. R., Cha, K. S., Son, H. J., Shin, M. J., Choi, J. R., et al., (2020). Infection control during surgery for patients with confirmed or suspected coronavirus disease-19.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25(1),4-10. <https://doi.org/10.14192/kjicp.2020.25.1.4>
- Hyeon, Y. H., & Chae, Y. H. (2021). The work experiences of emergency room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7(3),221-232.
<https://doi.org/10.22650/JKCNR.2021.27.3.221>
- Jin, D. R., & Lee, G. Y. (2020). Experiences of nurses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which is temporarily closed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4),412-422.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412>
- Jung, M. H., Kim, M. S., Lee, J. Y., Lee, K. Y., & Park, Y. H. (2022). An analysis of tasks of nurses caring for patients with covid-19 in a nationally-designated inpatient treatment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4),391-406. <https://doi.org/10.4040/jkan.22056>
- Kang, Y. A., Lim, K. C., Kim, J. H., Leem, C. S., & Choi, J. H. (2021). Lived experiences of nurses in taking care of patients in covid-19 pandemic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6(2),122-138. <https://doi.org/10.48000/kaqrkr.2021.6.122>
- Khan, M., Adil, S. F., Alkathlan, H. Z., Tahir, M. N., Saif, S., Khan, M., et al., (2021). Covid-19: A global challenge with old history, epidemiology and progress so far. *Molecules*, 26(1),39-64.
<https://doi.org/10.3390/molecules26010039>
- Kim, A. S., & Park, S. J. (2017) Nursing environment,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pediatric ward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7), 124-132. DOI : 10.5392/JKCA.2017.17.07.124

- Kim, J. M. (2011). *Professionalism,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im, N. H., Yang, Y. R., & Ahn, J. H. (2022). Nurses' experiences of care for patients in coronavirus disease 2019 infection ward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4*(1). <https://doi.org/10.7475/kjan.2022.34.1.109>
- Lee, A. J. (2016). *The comparison of emotional labor,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children's ward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Lee, G. R. (2021). *Emergency nurses' experiences over 1 year of the COVID-19 pandemic: A qualitative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S. J., Jin, X. L., & Lee, S. J. (2021). Factors influencing covid-19 related anxiety among infant's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6*(3),309-316. <https://doi.org/10.21097/ksw.2021.08.16.3.309>
- Lulgjuraj, D., Hubner, T., Radzinski, N., & Hopkins, U. (2021). Everyone is someone's child: The experiences of pediatric nurses caring for adult covid-19 patient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0*,198-206. <https://doi.org/10.1016/j.pedn.2021.06.015>
- Oh, H., & Lee, N. K. (2021).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ved experience of nurses caring for patients with covid-19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1*(5),561-572. <https://doi.org/10.4040/jkan.21112>
- Park, S. Y. (2022). Related factors to korean hospital nurses in burnout during the covid-19 outbreak: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7*(6),123-130. <https://doi.org/10.9708/jksci.2022.27.06.123>
- Park, Y. J., Huh, I. S., Lee, J. Y., Kang, C. R., Cho, S. I., Ham, H. J., et al., (2020). Application of testing-tracing-treatment strategy in response to

- the covid-19 outbreak in Seoul, Korea.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5(45), e396. <https://doi.org/10.3346/jkms.2020.35.e396>
-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 - 37. <https://doi.org/10.1097/00012272-198604000-00005>
- Szliszka, E., Czuba, Z. P., Domino, M., Mazur, B., Zydowicz, G., & Krol, W. (2009). Ethanolic extract of propolis (eep) enhances the apoptosis-inducing potential of trail in cancer cells. *Molecules*, 14(2),738-754. <https://doi.org/10.3390/molecules>
- Woo, K. A., Yun, E. K., Choi, J. S., & Byun, H. M. (2023). Burnout among nurses in covid-19 designated units compared with those in general units caring for both covid-19 and non-covid-19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9(4),374-384. <https://doi.org/10.1111/jkana.2023.29.4.374>
- Yoon, Y. M., Kim, S. K., Kim, H. K., Kim, E. J., & Jeong, Y. (2020). Comparison of topics related to nurse on the internet portals and social media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era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3), 255 - 267. <https://doi.org/10.5953/JMJH.2020.27.3.255>

<부록 1>

Date : 2023/12/26

주소 :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TEL : 02-3010-7166

심의결과 통지서

심의결과 통지일	2023년 01월 13일	심의방법	<input type="radio"/> 정규 <input checked="" type="radio"/> 신속
----------	---------------	------	--

접수번호	S2022-2656-0001	과제번호	2023-0037
과제명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 병동 간호사의 경험		
연구책임자	소속	어린이병원간호팀	직위 과장 성명 김다정
의뢰자	소속	IIT	
심의종류	신규과제		
심의결과	승인	연구개시, 지속, 변경사항 적용이 가능한 결과	
지속심의 주기	1년	승인유효 기간	2024년 01월 11일
서류접수일	2023년 01월 05일	심의일	2023년 01월 12일
심의 의견	<p>본 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제출하신 신규과제를 심의한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p> <p>Comment :</p> <p>1. AMC IRB SOP 에 따라 취약한 연구대상자로 임상연구실시기관, 연구자,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이 등록될 수 있는 과제로 원내 직원 등록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보고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위험수준평가: Level I 위험</p> <p>※ 본 임상연구심의위원회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해당 연구의 지속심의 주기에 맞춰 지속심을 제출 및 승인 받아야 하며, 연구가 종료된 경우 보고기한을 준수하여 종료보고를 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AMC IRB SOP (Ver 16.1_01 Nov 2022)

서울아산병원
 Asan Medical Center

임상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1/3

주소 :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TEL : 02-3010-7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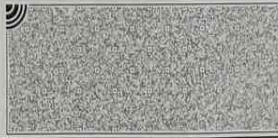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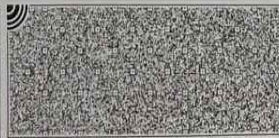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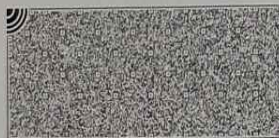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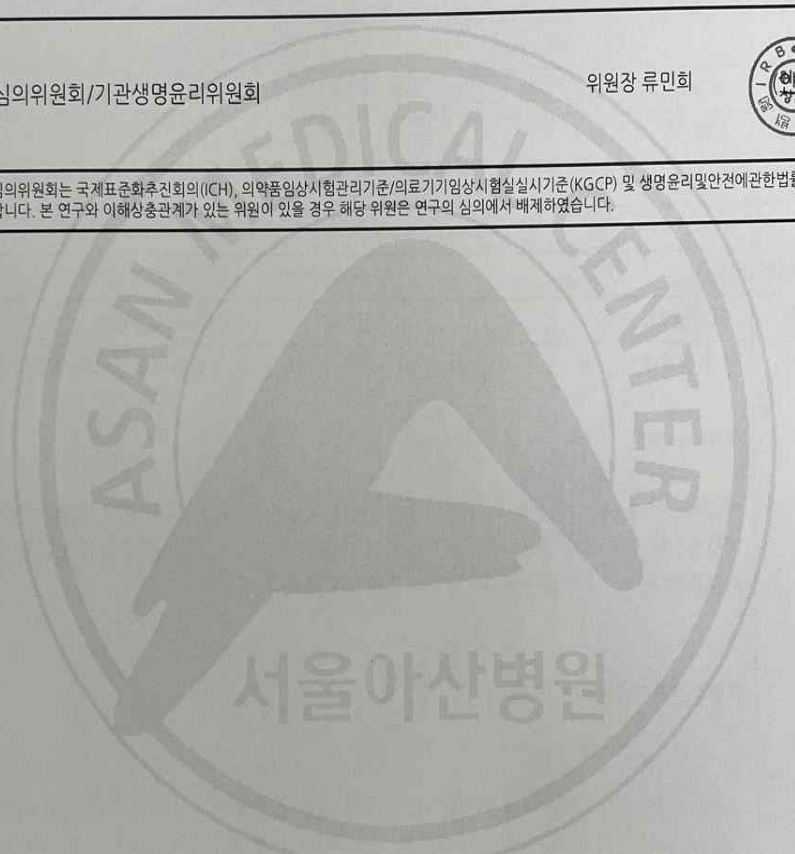
연구상세 분류	생명윤리법	인간대상연구
	연구대상	기타(간호사)
	연구구분	기타(질적연구)
	연구단계	
제출자료 목록 및 버전번호		

임상연구심의위원회/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류민희



본 임상연구심의위원회는 국제표준화추진회의(ICH),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준(KGCP)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AMC IRB SOP (Ver 16.1_01 Nov 2022)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Asan Medical Cent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소 :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TEL : 02-3010-7166

[연구자 준수사항]

1. 승인된 임상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임상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에 대해 IRB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승인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는 IRB통지일이 명시된 동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연구대상자에게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연구수행 중 대상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IRB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승인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승인유효기간 내에 지속심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IRB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연구종료 시에는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승인 받은 연구에 대한 기관의 내부점검 및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의료기기법, 헬싱키 선언 및 ICG-GCP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록 2>

Ver.1

연구 참여 희망자 모집 공고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에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 이라는 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연구목적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경험을 규명하고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함

2. 자격요건

<선정기준>

- 2022년 3월 기준으로 소아병동에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아 COVID-19 확진 환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 연구의 목적과 면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제외기준>

- 소아 항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자

3. 참여 혜택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1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 증정 예정

4. 연구 참여 기간 및 횟수

연구는 1:1 또는 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

인터뷰 장소는 면담실이나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행

면담 횟수는 1-2회, 1회 면담시간은 약 60여분 정도 소요될 예정

5. 지원방법 및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연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김다정

주소 :

연락처

<부록 3>

Ver.1

연구 대상자 설문지

인터뷰 날짜	년 월 일 (총 분)	장소	
대상자 식별번호		인터뷰 진행자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나이	만 ()세
학력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혼상태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이혼/별거 <input type="checkbox"/> 사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종교	<input type="checkbox"/> 기독교 <input type="checkbox"/> 가톨릭 <input type="checkbox"/> 불교 <input type="checkbox"/> 무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총 임상경력 (타병원 포함)	()년 ()개월
소아 병동 경력	()년 ()개월
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간호사 <input type="checkbox"/> 책임간호사

<부록 4>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

본 연구는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간호 경험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김다정 연구책임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연구책임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0년 3월WHO에서 COVID-19 팬데믹을 선언했고, 국내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에 치료병상을 배정하여 COVID-19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의 세계적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로 COVID-19 확진환자를 위한 특수병상은 포화상태가 되어 2022년 3월부터 본원에서는 일반병동 음압방이나 1인실에서 COVID-19 확진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아병동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소아병동에서는 간호제공의 대상자가 소아 환자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의 보호자까지 포함되고 직접간호를 제외하고도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시설과 환경등에 대한 추가적인 간호요구도가 있어 성인환자에 비해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간호사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경험을 규명하고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지지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연구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2022년 3월 기준으로 소아병동에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둘째, 소아 COVID-19 확진 환자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자

셋째, 소아 항암병동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

연구 대상자는 참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약 20명의 대상자에게 시행될 것입니다.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귀하는 심층면담 형식의 인터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는 주변의 방해받지 않는 회의실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면담 주제는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입니다. 면담은 내용이 포화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면담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면담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필요시 면담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전체 연구 참여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1회에서 2회정도 인터뷰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5.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COVID-19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예측불가로 찾아오는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소아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지지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6. 부작용 또는 위험과 불편함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겪는 위험과 불편함을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예측하지 못한 위험과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귀하가 특별히 준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또는 비용

귀하가 연구에 참여할 시 교통비 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인터뷰 완료시 10,000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될 것이며 상품지급을 위한 개인정보(핸드폰 번호)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상품은 1회만 지급됩니다)

8. 개인정보와 비밀 보장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연구자 김다정 입니다. 귀하에게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상태, 종교, 임상경력, 직위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정보는 잠금이 되어있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며 김다정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기관위원회 심의결과, 서면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현황, 연구종료보고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 종료 3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끝나면 모든 정보는 폐기될 것입니다.

9.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주시요. 귀하의 자료는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되지 않고 폐기될 것입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책임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다정

전화번호: 010-****-****

만일 어느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동 의 서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연구 책임자와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임상연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연구 시 시행하는 모든 인터뷰 내용을 연구자가 녹음하는데 동의합니다.
6. 나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연구기관, 연구비지원기관 및 임상연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서명일: 년 월 일
연구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서명일: 년 월 일

ABSTRACT

Nursing Experience of Pediatric Ward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im, Da Jung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University of Ulsan
Directed by Professor
Jeong, Jae Sim, RN, Ph.D.

Objective: The purpose was to understand the nursing experience of nurses in pediatric war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sed. Study participants were 20 nurses with experience caring for children with confirmed COVID-19 in a pediatric war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February to March 2023.

Results: Through the study, 42 subtopics were derived from 87 meaningful statements, which were organized into 15 themes and a total of 6 categories with more comprehensive meaning. The 6 categories are 'COVID-19 isolation has become routine even in general pediatric wards', 'Difficulty due to COVID-19 isolation in pediatric wards', 'Becoming a nurse for guardians rather than p

atients’, and ‘Confusion about role as a nurse in pediatric wards’ , ‘Improving situations’, ‘Nursing capacity has increased by overcoming the pandemic situa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in-depth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nursing experience of pediatric ward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a pandemic situation, the nursing experience of pediatric ward nurses is different from the nursing experience of adult COVID-19 patients. Through this, we hope that it will be used as evidence for the need for practical support and support system for nurses in pediatric wards in situations where infectious diseases may be prevalent repeatedly.

Key Words: COVID-19, nurses, pediatric ward nurses, nursing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